

I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106호 (선유도역 8번 출구)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제1회 KHC 역사캠프 개최

지난 8월 14일(금)부터 15일(토)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서 '세상을 이기는청년들(세이청)'과 공동 주최한 '제1회 KHC 역사캠프'가 약 40명의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Who Are We?'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서는 단힌 중화 질서 속 한민족을 향한 섭리에서부터 근대 문명의 도전과 복음의 유입,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며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세대별 맞춤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1776연구소 자문위원인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가 대표저자로 8월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를 주 교재로 삼아 진행되었다. KHC 역사캠프는 이번 1회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6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이다.



제2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 개최

지난 8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1박 2일 동안 광고산울교회 수양관에서 '세상을 이기는청년들(세이청)'과 공동으로 제2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NICE OR GOOD'을 주제로 약 50명의 청장년이 함께해 강의와 나눔, 예배와 기도를 통해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 대표), 조성봉 교수(숭실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오승철 목사(세이청 대표), 김승욱 교수(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도형 교수(한양대 기계공학과 우주공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교회와 사회, 한반도 정세, 노동과 경제, 정부의 경제정책, 시·사회의 인간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김도형 박사(청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상중 대표(자유시민교육 대표), 김정희 대표(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 이동엽 대표(클린텔코리아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대담을 진행했다. 제3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는 2027년 1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표 인사말

비가 오고 개니, 이제 확실히 선선했습니다. 영화 오딧세이를 본 후유증인지 몰라도, 네팔 산사태 등 인간이 조금도 제어할 수 없는 기후와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이 얼마나 두려울 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포세이돈 같은 신화를 만들어서라도 빌어야 했던 고대 사람들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조아리며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았을 것(행17)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문명의 부리에는 그러한 헬라 문명 뿐 아니라, 아웨라는 인격신을 섬기는 히브리 문명이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찰리 커크가 암살 당한 지 벌써 1주기입니다. 25년 전 911테러와 함께, 작년 9월 10일 찰리의 죽음은 우리 자유인에게 큰 충격을 통한 각성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자유문명을 파괴하려는 적이 있다는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적을 상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잡아 먹힌다는 사실, 그래서 인류에게 전쟁은 상수(constant)라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다시 한 번 전의(戰意)를 다집니다.

1776연구소의 새로운 처소가 생긴 것은 이미 지난 6월인데, 견미단과 역사캠프 등 여름 사역 때문에 연구소 이전 감사예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11테러 25주이기도 한 9월 11일 금요일에 찰리 커크 순교 1주기 추모와 겸해 1776연구소 라운지 개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미국이 다시 세운 One World 세계무역센터의 높이가 1776피트이고, 찰리의 sns 아이디가 "charliekirk1776" 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으로 문의)

9월 5일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이기도 하네요. 백령도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이 새로 건립된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내서 가봐야겠습니다. 또 15일은 인천 D-Day, 28일은 서울수복일입니다. 여러모로 자유를 위한 피와 눈물을 기리고 투지를 다지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후원자, 중보자, 동역자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6:13)

조평세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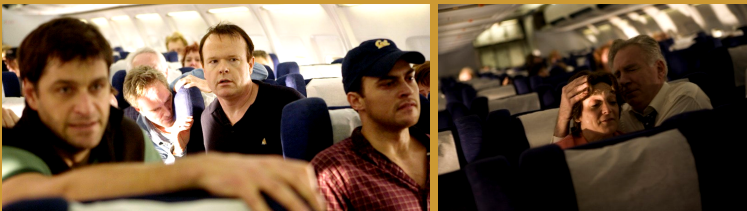
FILM & BOOK CURATION

이 달의 영화 | 《플라이트 93》

United 93 | 2006 | 범죄 | 프랑스, 영국, 미국 | 1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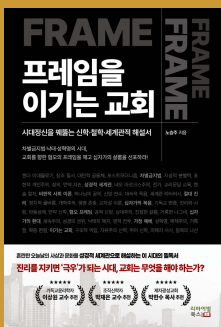


2026년 9월은 9·11 테러 25주기가자, 그날의 비극을 가장 사실적으로 담아낸 영화 《플라이트 93》이 개봉한 지 20주년이 되는 달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다시 고개를 드는 지금, 1776연구소는 문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평범한 시민들의 결단을 담은 이 영화를 9월의 영화로 추천한다. 미국의 대표 보수 정론지 《내셔널 리뷰》는 이 작품을 ‘지난 25년간 최고의 보수 영화’ 중 하나로 꼽았다. 영화는 할리우드 특유의 좌편향적 훈계나 억지 감동에 기대지 않고, 테러범들의 비뚤어진 종교적 광기와 적(敵)의 실체를 냉정할 만큼 담담하게 보여준다. 테러범들이 호텔 방에서 기도하는 오프닝부터 알라를 부르짖는 광기 어린 외침과 승객들의 간절한 기도가 뒤섞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화는 날것 그대로의 사실을 담아내며 ‘문명과 야만’,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납치된 4대의 여객기 중 유일하게 테러범들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유나이티드 93편의 저항은, 공권력이 닿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평범한 민간인들이 스스로 감행한 ‘대테러 전쟁’ 최초의 반격이었다. “자, 시작하자(Let’s roll)”라는 짧은 외침과 함께 테러범들에게 맞선 승객들의 결기는, 야만의 위협 앞에서 자유 시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용기 있고 책임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승객들의 마지막 전화 통화는 신양과 가족의 가치를 각인시킨다. 자유는 타협이나 방관으로 지킬 수 없으며, 악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하고 맞서는 용기로써 비로소 지켜낼 수 있음을 이 영화는 똑똑히 보여준다. 9·11 25주기를 맞아, 영화 《플라이트 93》을 통해 자유를 지키는 대가와 시민적 용기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권한다.



이 달의 도서 |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

노승주 저 | 리바이벌북스 | 2026년 05월 22일



오늘의 한국교회는 왜 ‘혐오’, ‘극우’, ‘시대착오’라는 프레임 속에서 점점 침묵하게 되었을까?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갈등을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나 문화 전쟁이 아닌 ‘신학적·철학적·세계관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적 사회 이론, 법과 문화의 변화, 생명과 성윤리, 가정의 해체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석하고, 세속적 가치가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나아가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랑으로 대화하고, 복음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구체적인 실천까지 다룬다. 시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월간조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논란으로 보는 미국의 역사전쟁

글 /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자학사관은 내부에서 문명을 갉아먹는 정신질환”

◎ 백악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의 ‘이념적 편향성’ 직격하는 보고서 발간

◎ “워싱턴·제퍼슨 등 국부들보다 원주민·유색인·이민자에 대한 차별 등 부각시킨다” 지적

◎ “‘국립’ ‘미국사’ 박물관에서 편향된 관점 일관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 (매슈 스폴딩 교수)

◎ 《뉴욕 타임스》, “첫 흑인 노예가 도착한 1619년을 미국 독립 연도로 봐야”

◎ 트럼프, 건국이념에 기반한 ‘해국적 역사 교육’ 진흥하기 위해 ‘1776위원회’ 설립

◎ 한국 좌파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은 북한 정권에 정통성 부여한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더 위험

9월 연구소 동정

1776라운지 개소 감사예배 및 찰리 커크 1주기 추모예배

1776연구소는 지난 6월 선유도로 새롭게 보금자리를 이전했다. 이후 견미단 활동과 여름 캠프 일정을 차렷로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1일 정식으로 '1776라운지 개소 감사예배'를 드린다. 아울러 1년 전 암살로 세상을 떠난 찰리 커크의 1주기를 맞아 그의 헌신과 유산을 기리는 추모예배를 함께 진행한다. 찰리 커크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되새기며, 1776연구소의 새로운 거점이 될 라운지의 출발과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참석 희망자는 사무국(010-5949-1776)으로 문자메시지를 남기면 라운지 주소를 개별 안내한다.



8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 ○ 은
권 ○ 운
권 ○ 현
김 ○ 은
김 ○ 연
김 ○ 애
김 ○ 연
김 ○ 종
김 ○ 희

김 ○ 현
김 ○ 은
김 ○ 애
김 ○ 희
김 ○ 은
김 ○ 승
나 ○ 원
노 ○ 스 더

도 ○ 현
만 ○ 학 교
문 ○ 아
민 ○ 환
박 ○ 선
박 ○ 혁
박 ○ 주
박 ○ 기
변 ○ 연

서 ○ 민
서 ○ 경
서 ○ 현
성 ○ 솔
손 ○ 은
손 ○ 광
신 ○ 빈
신 ○ 진
신 ○ 식

양 ○ 진
윤 ○ 옥
윤 ○ 민
이 ○ 현
이 ○ 은
이 ○ 은
이 ○ 운
이 ○ 빈
이 ○ 운

이 ○ 현
이 ○ 혜
이 ○ 란
이 ○ 은
이 ○ 창
이 ○ 성
장 ○
전 ○ 람
정 ○ 교

정 ○ 원
정 ○ 솔
정 ○ 혜
정 ○ 아
정 ○ 용
조 ○ 자
조 ○ 호
차 ○ 옥
최 ○ 희

추 ○ 령
한 ○ 다
허 ○ 은
허 ○ 영

후원 안내



정기후원자님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주세요.
일시후원도 가능해요!
우리 1005-004-781904 (1776연구소)
(후원 문의: 010-5949-1776)